

보성군 최초 대한민국식품명인 탄생



보성 강산농원의 김영민(오른쪽) 대표가 지난 8일 보성군 최초로 대한민국식품명인에 지정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강산농원 김영민 대표 97호 지정 도라지 식초 제조법 정통성 인정

보성 강산농원 김영민 대표가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 제97호로 선정되며 보성군 최초의 식품명인으로 탄생했다.

식품명인 제도는 1994년부터 우리 고유 식품의 보존·계승·발전을 목적으로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심사는 시도에서 추천된 3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역사적 사실 ▲기능 보유의 입증 및 계승 경위 ▲보존·보호 가치 ▲산업성 ▲윤리성 등 종합 평가를 거쳐 전문가 현장 조사와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최종 심의를 통해 총 7명이 식품명인으로 지정됐다. 식품명인에게는 ▲보유기능 기록화 ▲전수자 활동 장려금 지원 ▲제품 상품화 컨설팅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김영민 명인은 3대에 걸쳐 전승된 가문의 ‘도라지식초’ 제조법을 계승해 1992년 보성에 정착, 강산농원을 설립한 이후 30여 년간 발효식초 연구와 전통 기술 현대화에 매진해 왔다.

김 명인이 보유한 도라지식초 제조법은 박해통고, 임원식육지 등 고문헌 속 전통 발효식초 제조법과 일치하며, 집안에서 전해 내려온 제조 과정 역시 문헌을 통해 확인돼 보존할 가치가 높은 기술로 인정받았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군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탄생하게 돼 큰 의미가 있다”며 “보성군의 우수한 전통 식품이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통 식품 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영민 명인의 제품은 2000년 이후 농산물 품평회, 농산물가공경진대회, 한국음식전시경연대회 등에서 다수의 수상 실적을 기록했으며, 김영민은 2013년 농식품 가공 분야에서 농촌혁신을 주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신지식농업인’에 선정됐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에서 2개월간 열렸던 천경자 화백 추모 10주기 리마스터전 ‘RE:Chun Kyung-Ja 환상여행’.

천경자 화백 추모 10주기 리마스터전 관람객 6000여명 찾아 성황리 폐막

고흥아트센터서 두 달간 진행

고흥에서 열린 천경자 화백 추모 10주기 리마스터전 ‘RE:Chun Kyung-Ja 환상여행’이 총 6000여명의 관람객이 찾은 가운데 지난 7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전시는 천경자 화백의 타계 10주기를 추모하고자 고향인 고흥에서 열린 전국 유일의 단독 리마스터 전시로, 고흥아트센터에서 지난 10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진행됐다.

군은 서울특별시와 시립미술관의 협조를 받아 천경자 화백의 기증 작품 93점 중 채색화·드로잉 등 63점을 선정해 선보였다. 또한 유족 측이 제공한 유품 40여 점과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 등을 포함해 총 100여 점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관람객들은 이들 작품을 통해 천경자 화백의 예술 세계를 한상여행처럼 재조명하며 새로운 시각에서 감상하는 기회를 가졌다.

천경자 화백의 예술이 현대적 감각 속에서 다시금 빛을 발하며 관람객들에게 신선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선사한 이번 전시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전시 마지막 주말인 12월 6일과 7일에는 수백 명의 관람객이 몰리며 천경자 화백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추모 전시를 넘어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천경자 화백의 예술 세계를 기리고, 그 정신을 후대에 전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받았다.

관람객들은 “작가의 고향인 고흥에서 열린 전시를 통해 천경자 화백의 작품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군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천경자 화백 타계 10주기 전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기쁘다. 전시를 찾아 감동을 나눈 모든 분과 본 전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유품을 기증해 주신 유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천경자 화백의 예술 세계가 대한민국의 문화자산으로 기억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선양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여수시 ‘2026 UN 기후주간’ 범시민 준비위원회 출범

성공 개최 시민사회 협력체 구성

여수시가 지난 8일 디오션호텔에서 ‘2026년 UN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 대한민국 유치에 관한 범시민 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여수시가 ‘2026 UN 기후주간’ 국내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민간이 주도하는 전국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참여형 유치 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사)탄소중립실천연대, 서울에 코를박, 여수시장에인재가연합회, 여수교육지원청, 바르게살기협의회, 여수언론인협회 등 300여 명의 시민사회단체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출범식 1부에서는 2025 탄소중립 환경활동가 양성 과정 수료식이 열려 시민활동가들이 공식 수료증을 전달받았으며 이어 표창과 공로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2부 본행사에서는 ▲황재우 (사)탄소중립실천연대 명예이사장 및 류종구 동서포럼 상임대표의 인사말 ▲김영주 (사)탄소중립실천연대 공동대표의 범시민 준비위원회 설립 경과 발표 ▲문영수 여수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연구실장의 ‘2026 UN 기



여수시의 ‘2026 UN 기후주간’ 유치를 위한 범시민 준비위원회가 지난 8일 출범했다.

후주간’ 여수 유치 관련 설명 등이 이어졌다.

범시민 준비위원회는 선언문을 통해 2026 UN 기후주간 국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의 필요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기관 간 연대의 중요성 등을 담은 내용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범시민 준비위원회는 기후주간 유

치 준비 과정에서 민·관 협력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수시는 앞으로도 유치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시는 정부·국제가구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UN기후변화협약은 12월 중 2026 UN 기후주간 개최국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시 CCTV 설치 기탁금 13개 기업서 2700만원 전달

광양시가 지난 9일 시청 만남실에서 광양상공회의소 회원사 13개 기업으로부터 시민 안전 기반 확충을 위한 CCTV 설치 기탁금 27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CCTV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루어진 것으로 기탁식은 광양시장을 비롯해 광양경찰서 관계자와 기탁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기탁금은 시내 주요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CCTV 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 발전과 공공안전에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준 13개 기업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금은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의 13개 기업이 CCTV 설치 기탁금 2700만원을 광양시에 전달했다.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은 “광양시민의 안전을 위한 뜻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안전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양상공회의소와 회원사들은 2023년에도 CCTV 설치를 위해 1억7000여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광양시는 현재 1600여 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계기로 안전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해 시민들의 생활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스튜디오 순천, 웹툰·애니 스쿨’ 교육생 모집

26일까지…2개 분야 93명

순천시가 오는 26일까지 지역 문화콘텐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스튜디오 순천(Studio Suncheon)’ 웹툰, 애니메이션 스쿨 교육생을 모집한다.

‘스튜디오 순천’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콘텐츠 전문 아카데미로, 지역에 정착한 콘텐츠 기업과 협력해 순천 산업현장에 특화된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교육은 웹툰, 애니메이션 2가지 분야로 구성되며, 웹툰은 글로벌웹툰허브센터에서, 애니메이션은 글로벌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캠퍼스에서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

된다.

먼저, 웹툰스쿨은 앵커기업인 ㈜케나즈가 강사진 및 멘토진으로 교육을 총괄한다. 교육과정은 예비창작자반 6개, 프로반 1개, 총 7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63명 내외 규모로 선발한다. 예비창작자반은 웹툰콘티, 웹툰PD, 웹툰작화 등 클래스별로 수업이 진행되고, 최대 3과목까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프로반은 글로벌 플랫폼 데뷔를 목표로 하는 전문작가 양성 과정으로 맞춤형 프로듀싱, 개인 작업공간 제공 등 원고 제작 과정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애니메이션 스쿨은 순천 입주기업들이 참여해 커리큘럼 설계부터 강의, 멘토링 전 과정을 주도한다. 애니메이션 제작공정에 맞춰 프리프로덕

션, 프로덕션 2개 반으로 구분하고, 각 15명 내외, 총 30명 내외를 모집한다. 실무과정이 종료되면, 기업과 교육생을 매칭해 실제 기업 현장에서의 포트폴리오 완성과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며, 이력서 작성, 모의면접 등 취업멘토링 과정도 별도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생에게는 정규교육 이외에도 관내의 콘텐츠 기업과의 네트워킹 행사, 현장전문가·선배 창작자들의 오픈특강 등 폭넓은 역량강화 기회가 제공된다.

또 출석률·과제수행 정도에 따라 창작지원금이 지급되며, 우수 교육생에게는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취업 및 프로젝트 참여기회가 우선 제공된다. 최고 사양의 기자재를 갖춘 교육장 환경도 교육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크리스마스 맞아 ‘행복 건네는 곡성군 민원실’

22일부터 3일간 특별 이벤트

곡성군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크리스마스를 맞아 ‘행복을 건네는 민원실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군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순간 따뜻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미니 포토존, 마음을 나누는 응원 메시지 보드, 아이들이 행정서비스를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어린이 민원체험 교실’ 등 다양한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작은 힐링 음악회를 통해 대기시간의 지루함을 달래고, 직원과 방문 민원인이 함께 참여

하는 친절 캠페인도 더해져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벤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곡성군은 9월 사전 직원 워크숍을 열어 민원 응대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계획이다. 단순한 행사 준비를 넘어, 직원 힐링과 민원 서비스 혁신을 동시에 끌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잠시 들르는 민원실이 아닌, 누구에게나 따뜻함이 건네지는 공간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연말에 민원실을 찾는 군민들에게 작은 선물 같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곡성=박순국 기자 psk8210@kwangju.co.kr



구례군매천도서관, 황정은 작가 초청 인문학 특강 성료

구례군매천도서관이 지난 6일 소설가 황정은 작가의 인문학 초청특강을 개최했다. <사진> 황정은 작가는 이날 최근 출간한 에세이 ‘작은 일기’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작은 일기’는 2024년 12월3일 계명령 선포 이후를 배경으로, 요동치는 시간 속에서 작가가 매일의 삶을 기록한 작품이다.

작가는 광장과 집 안을 오가며 사회적 격랑과 사적인 일상이 뒤섞인 하루하루를 섬세하게 기록했다. 불안으로 무너진 일상, 거리에서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과의 연대, 그리고 세상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계속 쓰며 삶을 버티는 작가의 모습이 진솔하게 담겨 있다.

또한 황정은 작가의 소설집 ‘아무도 아닌’을 중

심으로 참여자들과 활발한 대화가 이어졌다. ‘아무도 아닌’은 계약직 노동자, 층간 소음, 가족의 죽음과 실종, 치매 노인, 갑증노동 등 평범한 이들의 일상 문제를 다룬다.

황정은 작가는 “작가로서 이 시대를 정직하게 통과하며 놓지 않았던 고민들을 작품으로 남기고자 했다”며 “독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매천도서관 관계자는 “참여자들이 문학을 통해 일상과 세계가 연결되는 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